

##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최용식 수산정책실장 -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0월 3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91건과 6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10건, 대구 6건, 메기 6건, 꽃게 5건, 멸치 5건 등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강원도 고성군 소재 위판장 1건, 충남 서천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54건을 선정하였고, 24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0월 3주차 신규 8건 추가 선정(꽃게, 굴, 우렁쉥이, 삼치 등)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10월 2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3척,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 이와테현 오후나토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9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10월 30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울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0월 3~4주차(10.16~10.27)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분석 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2개 지점, 서남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원근해 1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 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 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 $^{134}\text{Cs}$ ) <0.068~<0.091 Bq/L, ( $^{137}\text{Cs}$ ) <0.069~<0.089 Bq/L, ( $^3\text{H}$ ) <6.6~<7.4 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 2. 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사고 관련 >

□ 지난주 브리핑에서 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작업을 하던 작업자 5명에게 배관 세정수가 비산되었다는 사실을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이 사고로 지역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작업자 2명은 몸 상태에 문제가 없고, 오염 부위의 피부 외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 28일에 퇴원하였다고 일본 측으로부터 추가로 통보받았습니다.

□ 오늘은 사고 발생 지점은 어디인지, 작업자 피폭이 ALPS 성능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그리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작업자들이 세정 작업을 하던 배관의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림(붙임1)과 같이, 증설 ALPS는 전처리설비와 다핵종 제거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자들이 세정 작업을 진행하던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은 이 둘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즉, 침전물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만을 마치고 아직 본격적인 핵종 제거는 하지 않은 상태의 오염수가 이 배관을 통과하게 되며,
  - 작업자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오염수를 청소하던 중, 세정수가 비산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번 사고와 ALPS 성능의 관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금 말씀드렸드시피, 피폭은 본격적인 핵종 제거 단계 이전에 있는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을 청소하던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 즉, 오염수 처리 공정상, ALPS 정화 미흡 등으로 핵종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피폭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는 없으며, 이번 사고와 ALPS 성능은 무관합니다.
- 또한, 이번 사고를 포함한 ALPS 공정상의 이상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직결되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음 그림(붙임2)에서 보듯이 ALPS를 거친 오염수가 바로 해양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 ALPS를 거친 오염수는 저장탱크에 보관 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탱크로 이송되어 배출기준 만족 여부 및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 뒤 해양으로 방출됩니다.
- 즉, ALPS로 처리된 후, 배출기준 만족 여부가 확인된 오염수만 방류 대상이 되므로, ALPS 운전 또는 고장 여부가 직접적으로 방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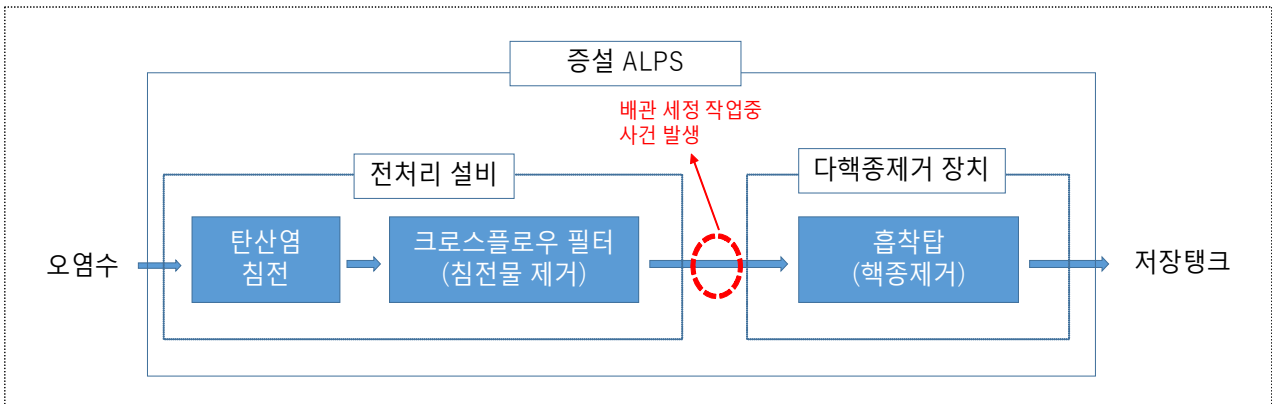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주 금요일(10.27)부터 어제(10.29)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8.3 (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 붙임1

## 증설 ALPS 내부 흐름도



## 붙임2

## 오염수 처리~방류 흐름도

